

자승스님, 필리핀 아라우부대 방문

“꿈을 위해 실천하는 주체적인 불자들이 되어달라”

▼ 아라우 부대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11월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지난해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을 방문, 아름다운동행이 후원한 재해복구 현장을 둘러보았다. 26일에는 타나완 국립고등학교 준공식에 이어 조계종과 함께 재해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아라우부대 군법당을 방문, 법회에 참석한 30여 명의 불자장교 및 장병들을 격려했다.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수처자주(隨處作主), 즉 어느 곳에 있든 주인의 역할을 다하라는 생활신조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회사의 주요 직책을 맡는 날이 옵니다. 또 이 나라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다보면 이 중에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자승스님은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는 실천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생각과 행동을 같이해야만 꼭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진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무사히 제대하는 것이라며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부모님 곁으로 복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법당 안을 메운 아라우부대 장병들은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 수장인 자승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아라우부대 장병들과의 만남은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종교적 지도자를 넘어 삶의 선배이자 인생의 어른으로서 남김 스님의 조언은 장병들의 군생활에 새로운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자승스님은 먼 이국땅에서도 불심을 키우고 있는 군인 불자들에게 단주를 선물하며 격려한 뒤, 법당 운영을 맡고 있는 심의칠 소령에게 연꽃 향로를 선물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글_ 편집부**

▶ 알립니다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국제불교 소식지 '세계일화'가 2010년 3월 발간호를 시작으로 45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사정상 지면으로나마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5년부터는 인쇄를 지양하고 온라인을 통한 소식지를 배달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나 웹북, 웹진,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국내·외 포교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화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열심히 배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70-7769-8985

이메일 kbin8985@naver.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자카르타 - 쿠알라룸푸르 MICE 로드쇼 성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지난 11월 4일과 6일에 열린 2014 자카르타-쿠알라룸푸르 MICE 로드쇼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이 다시 한 번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로드쇼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국제회의(Conference), 전시(Exhibition)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마이스(MICE) 기업 및 강원도청, 부산관광공사,

투어서울코리아 등 다수의 정부기관과 여행사가 참여, 인센티브 여행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사업단은 4일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만다린 오리엔탈 자카르타 호텔에서, 6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코리아 플라자에서 각각 비즈니스 상담 및 한국 마이스 설명회를 진행, 서울 내 대표적인 전통사찰인 봉은사 템플스테이와 백악관 샘 카스 부주방장이 사찰음식 비법을 배워간 진관사 사찰음식

을 소개했다. 특히 현지의 주요 기업, 단체, 여행사와 가졌던 상담회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알하브 무슬림 투어스 관계자는 “인센티브 관광은 항상 비슷한 일정이라 참가자들이 지루해 하는데 템플스테이는 새로운 체험이 될 것 같다.”며 “도심 한 가운데에 아름다운 사찰이 위치한 것이 특히 놀랍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관광공사의 현지 직원은 “무슬림들이 한국을 여행할 때 가장 곤란한 점이 음식인데 사업단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찰음식이 바로 무슬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국불교가 무슬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점은 사찰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6월 '2014 한국마이스산업전'에 참가, 해외 바이어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Best Promotion Gold'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www.kbuddhism.com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한글) www.koreanbuddhism.net (영문)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국제불교 소식지는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불교에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담겠습니다. (* 지면에 소개되는 기사에는 불교신문의 기사를 편집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번지 전법회관 3층 B동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담당_ 선정화 간사)

전화 070-7769-8985 전송 02-733-8985 이메일 kbin8985@naver.com 홈페이지 www.dourim.net/kbin 페이스북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스마트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법화경 어플 제작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불법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들어서 쌓은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법화경’, ‘무량의경’,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법화경해제’를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어플이 제작되었다. 운주사에서 발간되었던 『우리말 법화삼부경』을 혜조스님의 아름답고 간절한 목소리로 만들었다.

어플을 만든 안진보 씨는 “지난 2010년 겨울, 혜조스님을 만나 CD 내용을 어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더니 스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셨다.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어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 방법을 찾아 나섰고, 다나 최대종 대표와 로드피아 변창수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법화경’을 시작으로 ‘무량의경’,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을 어플로 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법화경해제’까지 만들게 되었다.”며 그동안의 경과를 회고했다.

어플에 음원을 제공해 주신 혜조스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로드피아 변창수 대표, 프로그램에 예쁜 옷을 입혀 디자인을 해주신 최대종 대표에게 감사하며,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경전을 손쉽게 자주 듣고 그 때마다 행복마일리지로 적립되어, 부처님 가피로 무량복덕을 누리는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란다. 글_ 안진보

대해스님, 러시아 기독교영화제 및 주립 영화 방송학교에서 불교 영화 상연



지난 11월 25일 러시아 파르족 시(市)의 러시아 주립 영화 방송 학교 ‘MBOU SOSH No.5 학교’에서 대해스님(유영의 감독, 국제선원 선원장)의 “영화를 통한 창의력 계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UN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11월 20일, Universal Children’s Day)과 세계 텔레비전의 날(11월 21일, World Television Day)을 맞이하여 No.5 초·중·고등학교가 기획한 ‘한국 영화의 날’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해스님의 영화는 생명이 본래 완전하고 무한가능성을 갖추고 있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학생들의 정신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데 가장 적합한 작품이라고 판단하고 대해스님을 초청하게 된 것이다.

특히, 단편영화 ‘무엇이 진짜 나인가’는 폭력과, 담배, 소년원 등을 전전하던 소년이 생명교과서 수련회를 통해 삶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해 폭력, 담배 등을 끊고 모범생으로 바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No.5 학교에서는 이 영화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이 영화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도움이 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

대해스님은 영화 ‘무엇이 진짜 나인가’를 통해 현상적인 방법이 아닌 본질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작용, 변경, 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의 본질에 대해 강연했다. 러시아 학생들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부분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며 관심을 표명했다.

대해스님의 강연 후 러시아 학생들은 강남스타일 공연과 아카펠라 노래로 스님 강연에 화답하고 부대행사로 한국전통문화를 통한 창의력 계발 시간을 가졌다. 사진에 학교 측에 전달한 대해스님의 교육 영상인 ‘한국의 새해를 여는 지혜’, ‘흥부 놀부

의 본래적 의미’, ‘한국의 전통의상의 본질적 의미’로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은 한복입기, 윷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을 직접 체험하며 즐거워했다.

학교측은 앞으로도 대해스님의 영화와 교육 영상들을 교육 현장에서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러시아 내 각 공화국들의 TV 및 라디오 방송사, 파르족 시청 공무원들도 참석했으며 행사 내용은 모두 방송으로 방영된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창의력 강연에 앞서 대해스님은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영화제에도 초대받아 참석했다. 러시아정교회,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정부 문화위원회가 주최하고 러시아정교회, 로마카톨릭교회, 기독교회 등 기독교 5개 종파가 후원한 영화제에서 ‘무엇이 진짜 나인가’와 ‘아기도 아는 걸’ 등이 수도원과 사원에서 상연되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찬사와 감탄을 쏟아냈다. 파르소노바 교도소의 교도관 크세니아는 교도소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데 영화의 주인공이 스님의 가르침으로 교화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스님은 나에게 아주 큰 선물입니다”, “스님은 청소년을 위해 아주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등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대해스님은 10여 년 전부터 유럽의 여러 영화제에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단편 영화들을 출품하여 그간 40여 개의 상을 시상했다. 학교 폭력, 재산, 질병, 가족 간의 문제, 교육,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 등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영화를 통해 전하고 있다.

사영화로세상을아름답게 www.mwbtf.org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

국제포교사회와 양천구 목동의 법안정사 부부불자회 회원 등 15명이 남방 상좌부불교(테라바다 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2014년 11월 8일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여행했다. 성지순례 후에는 양곤 교외의 담마두파 센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수행기도가질 수 있어 뜻 깊은 여정이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6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2014년 11월 8일 늦은 밤(현지시각)에 양곤 민글라돈 국제공항에 도착, 숙소에서 몇 시간의 단(街)잠 아닌 단(短)잠을 취했다.

둘째 날, 바간에서 황금의 모래언덕 웨지곤파야, 프레스코 벽화의 정수 구바욱지파야,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황금사원 웨산도파야 등 여러 곳을 방문했다. 사방이 지평선인 웨산도파야 위에 올라가서 그 넓은 하늘 가운데에서도 유독 이라와디 강 지평선 위, 바로 해가 지는 지점에 형성된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빛줄기와 탑의 정 반대편 지평선에 수렴되는 방사형의 빛살을 구경할 때는 감탄의 경지를 넘어 영원한 자비광명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명호가 저절로 외어졌다.

셋째 날, 만달레이로 이동하여 미얀마 최대의 수도원으로서 1,400명의 수행승이 거주하는 마하간다운짜웅에서 장엄한 공양의식을 참배하고, 불교의 우주관인 구산팔해를 상징하는 신부메파야를 관람하였다.

넷째 날, 만달레이에서 해호로 날아가 호수에 빠진 다섯 부처님 중 네 분은 건지고 한 분은 영험에 의해 돌아왔다는 빠

웅도우파야 및 수상고찰 점핑캣 사원으로 알려진 응아짜웅을 방문하고, 전통연(연)실크공방과 까꾸의 빠오족 마을 등을 둘러보았다.

다섯째 날, 로카찬다파야 방문 후 까바에파야로 가서 인도에서 가져온 석가모니부처님, 사리불존자, 목건련존자의 사리를 친견하고 경전 결집장소인 마하빠사나구하 동굴을 방문, 경율론 삼장의 결집과 기록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새겼으며, 차욱땃지파야로 이동하여 70미터 가량의 거대한 와불상을 참배했다. 간단한 저녁식사 후 양곤을 빠져나와 한 밤중에 수많은 봉사자의 영접을 받으며 담마두파 선수행센터에 도착해서 그동안의 여행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룻밤을 보냈다.

여섯째 날, 오전, 오후, 야간의 세 차례에 걸쳐 체킨다 스님으로부터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법문을 듣고 참가자 모두 대승불교와 상좌부불교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확실히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체킨다 스님은 우리 일행을 맞이하고 강의하기 위해 일부러 개인 일정을 미루셨을 뿐만 아니라, 기념품으로 우리가 들은 강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주셨다.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와 특히 인천 부평의 담마두파 선수행센터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보살님 덕분에 때마다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일곱째 날, 봉사자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선수행센터를 나와 다시 양곤 시내에 돌아와 불치사리를 소장하고 있는 웨도우파야와 더 이상 어떠한 말로도 수식할 수 없는 미얀마 자존심의 상징 황금사원 웨다곤파야를 방문했다.

이로써 미얀마 성지순례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2014년 11월 15일 자정에 미얀마를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육조단경에 ‘동경동행’, 즉 ‘뜻이 같은 사람이 같이 보고 같은 길을 간다’는 말과 같이 이번 미얀마 여행은 성지순례를 통해 안이비철신의 육근을 만족시키는 심신의 즐거움을 얻고 담마두파 선수행센터에서의 수행을 통해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마음의 평화(산티)를 얻는 좋은 기회였다. 글_ 무념 이병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처님 나라 네팔에서 자비 실천

“현지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씨에 많은 것을 느끼고 간다.” “그들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고 가는 것 같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 행복바라미 해외봉사단은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네팔 카카니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중앙신도회 산하 (사)날마다좋은날이 주최하고 행복바라미 조직위원회, 반갑다연우야, 동국대 경주병원, 한의사불자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해외봉사에는 30여 명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무료 진료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도 소개하며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다진 점도 큰 성과이다.

봉사활동 지역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카카니(Kakani) 산악마을. 지난 2011년 10월 안나푸르나 등반 도중 실종된 고(故) 박영석 대장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다. 수도에서 가까운 편이지만 해발 2,073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해 교통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진료는 내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에 걸쳐 진행됐다. 진료실과 약국마



① 단체 사진 ② 진료하는 모습 ③ 진료를 기다리는 지역 주민들

다 도움을 청하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주민들은 침 뜸 부항 등 한방진료도 받을 수 있었다. 의료봉사가 진행된 5일 동안 연인원 2,2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받았다. 약봉지를 하나씩 들고 보건소를 나가는 환자들에겐 치약과 칫솔, 수건 등의 선물이 주어졌다. 봉사단은 또 눈이 어두운 노인들에겐 돋보기안경을 공양했다.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그린 수묵화도 인기가 좋았다.

미용봉사팀은 현지 학생들의 머리를 깎아주며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학교 교사(敍)숙와 마을 상수도시설 보수 등 생활공간과 교육시설 개선사업도 봉사단의 몫이었다. 봉사단에 참여한 젊은 대학생들은 아이들에게 스스로없이 다가가 함께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무료진료소 인근 바와니 고등학교 학생들은 ‘7번방의 선물’, ‘도둑들’ 등 한국영화를 영어자막으로 관람하며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체험했다. 봉사활동은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험한 산길을 오가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정은 닷새 동안 똑같이 반복됐다. 팍팍한 스케줄에 짜증이 날 법도 하지 않나. 참가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지워지지 않는다. 다들 일부러 휴가를 내고 생업과 학업을 제쳐둔 채 찾아온 사람들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인 조은서씨(연세대 생활디자인학과 2학년)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힐링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석 동국대 경주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어릴 때 내가 살던 고향이 연상된다.”며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어 뿌듯하다.”고 토로했다.

이기홍 중앙신도회장은 “해외의료봉사는 개발도상국에 한국불교의 자비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해외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글 조계종 중앙신도회 장성원 팀장



아름다운동행의 해외 재난구호 활동을 돌아보며

2008년 7월 설립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총무원장은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활발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아이티 지진피해 현장에 불교계 및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대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쓰나미 재해현장, 태국 대홍수, 지난 2013년 11월 필리핀 태풍피해까지 재해·재난 발생 지역에 긴급구호 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현장에 필요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 및 의료 활동을 진행하고, 현재까지 약 20억 원의 구호활동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불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모금 활동을 펼쳐 중국 칭하이성 강진, 칠레 강진, 파키스탄 홍수, 인도 라다크 홍수, 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 아프리카 말라리아 등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해 긴급구호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티와 필리핀의 경우는 1차 긴급구호봉사단 파견 및 물품 지원에 이어, 아동·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내일을 꿈꾸며 정착할 수 있도록 2차 재건복구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지난 9월 30일에 헤르메 바야드(Herme Bayard) 고등학교를 완공하였고, 필리핀에서는 파워·부락·다가미 센트럴 초등학교, 톨로사·카부이안·타나완 고등학교 등 6개 초·중·고등학교의 재건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아이티재난 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재해·재난의 발생으로 고통 받는 세계 이웃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닿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원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며, 기부금이 투명하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고 전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해·재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발생원인과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며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에 대한 피해는 재난에 대비할 역량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크며, 그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빈곤층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세계 이웃들이 안정되고 존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긴급 재해·재난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캄보디아에 평화가 꽃피는 그날까지

- 지구촌공생회, 지뢰 없는 공생 평화마을 프로젝트

2012년 제16회 만해대상 평화부문에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과 캄보디아 지뢰제거연대(Cambodia Self Help Demining: CSHD) 아키라 씨가 공동 수상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캄보디아 지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은 2013년, 캄보디아 주민들의 생명 보호와 평화로운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뢰 없는 공생 평화마을’ 사업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 사업(3년)으로 선정되어 현재 지뢰 제거 및 위험성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지뢰 제거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식수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가 활동하고 있는 씨엠티 지역은 과거 지뢰 다량 매설지로 황폐한 땅이었다. 그러나 앙코르와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세계의 주요 관광지가 되었고, 이에 정부는 안정적 관광수입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지뢰제거 사업에 착수했다. 현재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나 씨엠티 주변의 지뢰 매설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지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문제를 느낀 지구촌공생회는 상

대적으로 정부와 국제 원조에서 외면 받고 있는 지역 위주로 지뢰 제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캄보디아 로컬 NGO인 CSHD와 협약을 맺어 국경지역의 지뢰 제거에 힘쓰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와 KOICA의 지원으로 지뢰 제거 사업은 큰 수확을 얻었다. 올해 10월까지 5개 마을, 72,921㎡(22,058평)의 토지를 정화했으며 12월까지 추가적으로 126,881㎡(약 38,381평)의 토지가 정화될 예정이다.

지뢰로 인해 지나다니 수도 없던 땅은 지뢰 제거가 끝나고 나면 밭으로 개간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가난한 주민들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땅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듯 지뢰 제거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뿐 아니라 버려진 땅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캄보디아에 지뢰 없는 공생 평화마을이 만들어져 진정한 평화가 꽃피울 그날을 기대해 본다.

지구촌공생회 후원문의 02-3409-0303

▼ 지뢰 제거 지역에서 주민 의식 변화를 위해 지뢰 위험성 교육을 진행한 후 아이들에게 지뢰의 위험을 알리는 노트를 선물했다.



프랑스 국립 박물관에서 거행된 간화선 실참과 법문

프랑스와 유럽인들에게 아시아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기메 동양 박물관에서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한국 선불교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위해 대한불교 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이 초청되어 간화선 실참 및 강연회를 실시하여 프랑스 땅에 아직까지는 생소한 한국 선불교 전통을 알리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메 동양 박물관은 1889년 창설자 에밀 기메 씨에 의해 설립될 당시부터 아시아의 종교, 특히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곳입니다. 그 동안 본 박물관을 통하여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 불교문화가 현지인들에게 꾸준히 알려진 반면 한국 불교에 대한 소개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파리 길상사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본인은 5년 전 이번 행사가 개최된 바로 그 자리에서 일본의 참선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공기관과 사립기관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성대하게 열린 행사를 지켜보면서, 언젠가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면 같은 장소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한국의 선불교 전통을 소개하고 싶다는 소박한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기메 박물관에서는 한국 선불교 문화 행사를 개최하자는 제안에 흔쾌히 응했으며, 지난 1년간 여러 지인들의 크고 작은 손길에 힘입어 이번 행사를 여법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재 수리와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도화원' 소속 장인들이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5미터 높이에 해당하는 괘불을 제작하여, 법연에 참석한 대중들로 하여금 괘불의 위용 앞에서 찬탄과 환희심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괘불로 장엄이 된 행사장은 이름 그대로 부처님을 모시는 붓다관으로 변모했으며,



바로 이 자리에서 3일간에 걸쳐 수불스님의 지도하에 800여년에 걸쳐 전승되어온 간화선 수행의 요체와 수행 방법이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현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켜보면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번 행사에 관심을 갖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보며, 더 나아가 한국 불교를 외국에 소개하는데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기메 박물관 측의 입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메 박물관에서 정한 이번 행사의 주제 '21세기에 선(禪)을 가르치다'에서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간화선이라는 전통이 오늘날 어떤 형태로 살아 숨 쉬는지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사의 취지에서 간화선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에 어떻게 접목 가능할지에 대해 행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불교가 기메 동양 박물관의 역사에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이 시대에 한국 불교가 외래문화와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준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 불교의 법의 꽃비가 프랑스에 흠뻑 내리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간화선이 더욱 널리 보급되기를 발원해봅니다.

글_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스님

아르헨티나 고려사, 현각스님 초청법회 및 현지인 대상 참선 프로그램 개최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한인타운 초입에 자리한 고려사는 낙후된 건물로 인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 고자 27년 만에 처음으로 재건축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불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사월 초파일 연등공양금과 불자들의 십시일반 동참금을 모아 가능했다.

고려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만큼 이를 기념하고 한국 불교의 현지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현각스님 초청 행사를 기획하여 약 열흘간 고려사를 알리고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알리는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먼저 첫 번째 행사로, 10월 11일 오후 3시부터 재야한인회관에서 교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약 3시간 동안 현각스님의 법문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연이 끝나고 준비된 다과와 기념품을 나누었고, 법사리 발길을 돌리지 못한 많은 분들이 현각스님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두 번째 행사로, 10월 12일 10시 고려사 중창불사 낙성식을 여러 외부인사와 신도 약 50여 명의 참석으로 봉행했다. 현각스님은 법문 중에 고려사가 외부적으로 새롭게 단장이 되었으니, 이전 내부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한국사람,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나누지 말고 불이 사상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다른 언어에서 오는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스페인어로 된 예불문이나 자료를 만들 것을 당부하셨다.

세 번째 행사로는 10월 12일 저녁 7시 일본 조동종 선센터 남선사 주지스님 (Senpo Oshiro)의 초청으로 그쪽 현지인 참가자들 30여 명과 함께 좌선하는 자리를 가졌다. 좌선이 끝난 후 현각스님의 한국 참선 소개 및 법문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일본교포 3세인 주지스님은 명상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남미불교컨퍼런스, 각종 일본문화제 및 축제, 영화상영회, 다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주관하여 일본 문화와 일본불교의 현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걸음마 단계인 한국불교의 현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모색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드디어, 이번 행사 중에 가장 기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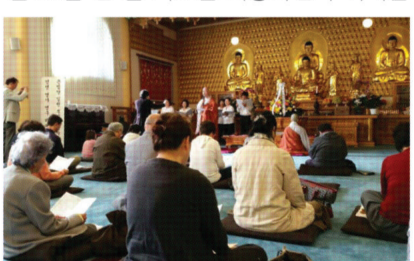
크고 많은 시간동안 준비한 현지인을 위한 참선 프로그램이 10월 18, 19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고려사가 현지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얼마나 모일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 걱정이 앞섰는데, 그 걱정과는 달리 한나들 사람들이 들어서며 사찰 입구를 장엄한 단청과 법당 내부의 모습을 보고는 "Muy lindo!" (스페인어로 "너무 아름답다!")라고 몇 번이나 감탄했다. 그렇게 약 40여 명의 현지인들이 모였다. 현각스님의 참선에 관한 소개 후 법문 중에 주장자를 들어 바닥을 '탕' 치는 장면은 현지인들에게 한국 참선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한 명쾌하고 막힘없는 스님의 답변에 참선을 처음 접한 현지인들의 눈이 빛났다. 궁금증이 해소된 표정,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호기심 가득한 표정 등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현각스님 지도아래 두 번의 참선 수행을 마친 후, 차담 시간에 몇몇 참가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르헨티나 현지인들도 명상에 관해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불교에 대한 관심, 특히 수행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환희심이 났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약 열흘에 걸친 기념행사를 여법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송산스님 10주기 기념 세계일화의 뜻을 이곳 아르헨티나에서 활활발발히 펼쳐주시는 현각스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국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국 불교 세계화의 한 일환으로 한국에 계시는 고승대덕스님들께서 많이 방문하시어 지구반대편 불자들을 위해 법비를 내려주시기를 날마다 축원드립니다.

글_ 아르헨티나 고려사 주지 성제스님

LA 고려사, 생전 예수재 거행

2014년 윤9월을 맞이하여 LA 고려사에서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생전 예수재를 거행, 일요일 마다 재를 올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서래대학에 재학 중인 아진스님이 오셔서 도와주셨고 고려사 신도 외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살아 있을 때 미리 공덕을 닦는다고 많은 신도분들이 신심을 내서 참여하였습니다. 11월 23일 한 달 기도를 회향하면서 위패를



소각하며 모든 근심, 번뇌를 태워버렸습니다. 보리수 합창단이 시작한 주와 끝나는 주에 음성공양을 하였습니다.

신도님들의 반응은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윤달이지만, 9월이 오르면 60년의 세월이 걸리니 참 좋은 달에 기도가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절에서 기도와 이벤트를 자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윤9월에 생전예수재 기도를 하면서 49재가 두 건이 들어왔고 기제사, 이장기도, 안택기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줄을 이었습니다. 너무 큰 반응과 보답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두 불자님들 덕분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포교에 힘쓰겠습니다. 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려사 모경 합장

국제불교학교의 미 동·중부지역 연수를 회향하며

2014년 10월 미동부지역과 중부지역으로 21일간의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해외포교와 관련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로 해외 포교 원력을 세운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점이다. 조지아 전등사 주지이신 마야스님은 해외 포교를 하려면 고생을 낙으로 삼아 온몸을 던져 포교할 것을 강조하셨다. 내가 스님입네 하는 상이 있고 신도님들에게 대접받기만을 바라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일하느라 일주일을 어렵게 고생한 그들에게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꾀은 일을 나서서 하는 하심(下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출가자로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 주된 일인데 그 수행이란 내 몸속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이고 업을 바꾸는 것이므로 절대 쉽지 않은 것이니 항상 하심하며 스스로 닦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미국에 한국불교를 처음 전파하신 송산스님의 제자 현각스님과과의 대담시간에는 송산스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실제 사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송산스님은 한국불교의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한다.

미국인들이 갖는 직업을 갖고 그들의 삶에서 유리되지 않으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하신 점이 송산스님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이다. 미국인들과 생활을 함께하면서 그들 속에 살며 대화를 해야지만 사회적 이슈도 같이 알고 함께 흐르듯이 살면서 불교를 전파할 수 있다. 마치 자물쇠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열쇠를 자물쇠에 맞춰 만들어야 하듯이 서양인들의 마음에 맞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수정하고 현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해외포교란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새삼 깨달았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타종교, 타종단의 예배나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베네딕트 수사님들의 미사, 유대교의 속죄일 집회, 일본 일련종 사찰인 그래프톤 평화의 탑절(Grafton Peace Pagoda Temple)의 개원 21주년 기념 법회 등에 참석했다. 세 종교의 공통된 특징은 아주 평온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집회를 한다는 것이었고 노래와 운율, 가락을 이용한 기도가 주가 된다는 것이었다. 수도원에서는 기타를 이용하여 찬송가를 부르고 유대교 회당에서는 악기 없이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경전에 운율을 붙여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일본 사찰의 행사에서는 감명 깊은 사건을 경험했다. 여러 이웃 종교에서 이 사찰을



축하해주기 위해 기도를 올린 것이었다. 힌두교, 유대교, 시크교, 이슬람교, 아프리카 정신적 지도자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사찰을 위한 기도문을 준비해와 읽어주는 모습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번 일정동안 새로 개원하는 절의 역사를 처음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웠다. 애틀랜타에서 처음 문을 연 북다나라의 개원식을 준비하기 위해 부처님 복장으로 넣을 경전과 보석, 사경지, 연자, 발원문 등을 소중히 한지로 포장하는

것부터 새 법당을 번으로 꾸미고 도량에 만국기를 달고 신중님 탕화를 내 손으로 운반하는 일까지,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이절이 미국포교의 중흥지로 발돋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 벅찼다. 또한 조지아 전등사의 천불 부처님 이운식 및 천도재에 참석하여 이민2세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불교전통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 것도 매우 보람찬 일이었다.

그 외 LA법왕사 현일 스님을 모시는 시자 소임을 살며 스님이 35년간 미국에서 포교하며 느끼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점도 행운이었고 법륜스님의 강연회에 참석하여 미국인들에게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경험이었다.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좋은 길잡이로 삼을 것이라 다짐한다.

글_ 국제불교학교 3기 성화스님

호주 연꽃선원, 지금 이 삶을 정토로 만듭니다

호주 중부의 휴양도시인 브리즈번 인근 그린뱅크에 위치한 연꽃선원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으면서 호주의 현지인들에게도 불법을 전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2007년 4월, 여덟 가족 16명이 모임을 갖고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개인집 차고에서 법회를 갖기로 결정한 것이 연꽃선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주택가의 주차 문제가 야기되어 인근 고등학교 강당으로 법회 장소를 옮겼고 2008년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법당건립 불사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 '홍제사'로 사찰명칭을 정하고 자원스님을 주지스님으로 추대했습니다. 2010년 월남 사찰 불타사 수련원으로 이전했다가 현재의 건물을 구입, 연꽃선원 명의로 된 우리 절에서 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일 퀸스랜드 주(州)정부로부터 '연꽃선원(Lotus Meditation Center Inc.)으로 명칭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자원스님 이후 수홍스님, 보성스님을 법사로 모셨으며 현재 전(前) 조계

종 국제불교학교 교학처장 지정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연꽃선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다가가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촌 구석구석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환하게 밝혀져서 마침내 수승한 수행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부처님의 깨끗한 세상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불자들의 모임으로 만들어 갑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어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속에서의 수행을 신행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한인 일반신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갖고 있으며 내년 2015년 1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한인 불자 및 영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참선법회를 시작합니다. 또 2월 4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써니뱅크/턴컨 지역에서 브리즈번불교대학을 열어 불교기초교리 및 경전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자비행으로 이웃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불국토를 이뤄나가기를 발원합니다.

연꽃선원 <http://cafe.daum.net/brisbanelotus>



(법당과 요사채)

“스님과 함께하는 미주불교 토틱 콘서트” 불교의 미래는 청소년 포교에 달려있다

11월 3일 오후 8시 부산 흥법사 대광명전에서 ‘스님과 함께하는 미주불교 토틱 콘서트’라는 독특한 법회가 열렸다. 흥법사 개산 11주년과 11월 다라니 3일 기도회향을 기념해 열린 ‘토틱 콘서트’는 미국 LA 정혜사 주지 석타스님을 초청,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스님과 함께 미주불교 현황과 청소년 포교 등을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 **미주불교** 먼저 미주불교의 현실에 대한 석타스님의 소개가 있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포교하는 것은 대만불교이고 두 번째가 베트남불교로 미국 전역에 3,000여개의 사찰을 가지고 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1974년 베트남이 공산화 되면서 배로 탈출하는 사람들은 가방 하나씩만 짐작할 수 있었는데 미국과 프랑스에 도착한 베트남인들의 가방 안에는 불상(佛像)이 한 분씩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 같은 신심이 미국 전역에 많은 사찰을 만들었으며, 지금도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지적 수준이 높게 포교하는 것은 티베트불교이다. 지식인 그룹들이 달라이라마 존자의 영향을 받아 많은 활동을 하며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불교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곳곳에 사원을 만들고, 실제로 포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특징은 일본 일련종 창가학회가 백인들을 중심으로 밀접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불교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 최근 들어 성공한 중국교포 실업가들이 시주를 활발히 하면서 점차 활동을 넓히고 있다. 석타스님은 한국불교는 역사가 5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직이 미미하고 사세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 **청소년포교** 석타스님은 신도들 대



부분이 고령화 되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입적했을 때 스님 대신 목사나 신부들이 장례에 참석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포교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생 포교를 열심히 하다보면 얼마도 당연히 절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에 역점을 두고 포교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법당이 비좁을 정도가 됐다. 정혜사는 현재 한국어에 서툰 15세와 2세들에게는 ‘영어법회’를 하고, 한글을 숙지한 초중등생에게는 ‘한국어법회’를 한다.

심산스님은 정혜사 청소년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흥법사에 머물면서 영어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2015년 1월에는 흥법사의 청소년들이 정혜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 분은 미국에서, 한 분은 한국에서 뜨거운 포교 원력으로 스님은 앞에서 이끌고, 법우는 뒤에서 미는 승가공동체를 이루어 오신 두 스님의 말씀은 법당에 자리한 신도들의 마음을 환희와 결의로 채워주었다.

한국불교는 2,000년에 가까운 전통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와 심성 속에서 빛나고 있다. 기도와 정진으로 불교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두 스님의 만남이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글_ 흥법사

패션쇼 무대에 선 일본 스님들

코야산, 일본 - 11월 1일, 나라에서 열린 패션쇼에 10명의 스님이 무대에 등장했다. 1,500여 명 중에서 선발된 10여 명의 스님들은 서로 다른 스타일의 승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볼 기회가 없었던 승복들로 이 가운데에는 고위직 승려만이 입을 수 있었던 희귀한 승복들도 포함되었다. 한 스님은 전통 승복을 입고 서구의 팝송에 맞춰 경쾌한 스텝을 밟으며 흥중양을 내려왔고 그 뒤를 이어 밝은 보라색 승복을 입은 스님은 두 명의 시자를 거느리고 무대 중앙에서 포즈를 취했다. 모델 역할을 한 스님들은 이 낯선 경험을 즐겁게 받아들였는데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스님들은 코야산에서만 입는 승복을 직접 입을 기회를 가진 것에 흡족해했다.

오사카에서 온 수치 마츠키 스님은 “좀 당황했지만, 모델 역할을 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한 여성 관객은 “스님들이 모두 정말 멋지다. 너무 재밌었다.”고 답했다. 약 300여 명의 관객은 스님들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환영했고, 많은 관객들이 모델 스님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아름다운 스님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쇼는 코야산 관광 홍보를 목적으로 개최된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내년 11월에 열리는 개산 1,200주년 기념행사를 알리기 위해 코야산 진언종 청년교사연합회가 주최했다.

진언종은 805년 쿠카이 스님(774-835, 사후에 코보 다이시로 알려짐)에 의해 일본에 도입되었다. 쿠카이는 코야산에서 진언종을 개창했는데 이 사원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해발 800m 높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위의 봉우리가 연꽃을 닮아서 이곳에 자리 잡았다고 전해진다. 마을은 불교대학과 120여 개의 사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템플스테이도 가능하다. 코야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BBC [2014. 11. 4]

19세기의 거대 미륵불상이 복원된다

치타, 러시아 - 러시아의 바이칼 지역에 있는 아긴스키 댓산(‘댓산 datsan’은 티베트 사



원을 지칭하는 용어임)이 19세기의 미륵불상을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높이 16m의 이 부처상은 원래 중국의 장인들이 의해 제작된 것으로 스님들이 직접 현재 남아 있는 조각들을 맞추고 분실된 부분들은 새로 만들어 보완할 예정이다. 복원 작업과 함께 이 불상이 다시 신앙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축성법회도 가질 계획이다.

사원 관계자는 다라니, 곡식, 약초, 향나무 잎, 작은 탑 등의 복장물이 안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막대(srog shin)’로 이것은 가운데 부분에 기도문이 새겨진 커다란 삼나무 막대인데 경전에 의하면 이것이 없으면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 지방 정부는 이 복원작업에 11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

TASS News Agency [2014. 11. 26]

토론, 영화, 무용, 미술 망라한 불교 페스티벌 열려

뉴델리, 인도 - 제3회 이너 패스 페스티벌(‘내면의 길’ 축제, Inner Path Festival)이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려 불교영화 상영 및 전시회, 무용, 불교 교리에 대한 토론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불교예술 및 교리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증진을 목표로 2012년에 시작되었다.

상영작품 중 ‘쿵후 비구니스님들(Kung Fu Nuns)’은 스님이 되기 위해 집을 떠나는 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녀는 쿵후를 배우고 고대의 용춤을 가르치면서 은둔의 땅 라다크 오지 여성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다.

영화상연 외에도 네팔의 아니 쇼잉 드를 마 비구니스님의 찬불가와 염불이 공연되며 미술가 20여 명의 작품도 전시된다.

World Religion News [2014. 11. 24]

불교 3대 주요 전통, 대화의 법석 펼쳐

토론토, 캐나다 - 대승불교, 상좌부불교, 금강승불교,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종파 등 전 세계에서 온 서로 다른 불교 전통의 지도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참석자들의 면면이나 다루

어진 주제, 모임의 의미는 깊다.

‘도시의 승려’로 잘 알려진 반테 사라 나팔라 스님, 스리랑카의 대선사 만카다와라 수다짜나 테로 등의 상좌부불교 스님들, 대만의 식우데 스님, 한국 선불교의 화선 양일 스님 등의 대승불교 스님들, 켄포 쫄남 스님, 계췌 나왕 초드렌 스님 등의 금강승불교 스님들 등 다수의 스님이 참석해서 자신의 종파를 대변했다.

모임의 목적은 각각 다른 불교 전통의 대표자들을 초대해 자신들이 속한 전통의 견해와 교리를 얘기함으로써 방청객들에게 불교 전통들의 근본적인 유사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구도를 위한 수행의 방법들은 다를 수 있지만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결과는 모두 같다. 이런 통일성이야말로 이번 심포지움이 제시하는 메시지이다.

Dorje Kirsten,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11. 14]



불교문화 보호 및 보존 위한 국제회의 개최

룸비니, 네팔 - 11월 14일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열린 국제불교회의에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온 400여 명이 넘는 스님과 학자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은밀히 전수된 문헌, 역사적 기념물, 주요 사적지 및 공동체 등 불교문화와 전통들을 보존하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불교문화 및 유산의 증진, 보호와 보존’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대화는 테라바다불교 아카데미, 룸비니불교대학, 시타구 국제 불교아카데미(미얀마) 등이 협력하고 유네스코, 룸비니개발 트러스트,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대화는 6개 분과로 나뉘어 90개 이상의 논문들이 발표되는데 그 주제는 상좌부불교, 금강승불교 그리고 대승불교를 망라한다.

이 회의의 주제는 문화적·영적 관광



을 증진하고 교육과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불교 사회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회의 동안 특히 룸비니 개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룸비니의 공해 문제를 살펴보고 이의 원인이 되는 산업체들과 교통량 증가 등에 대한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운영위원회에 의하면 회의는 나흘 동안의 발표와 토론을 결집하는 룸비니 선언문을 발표하고 막을 내리게 된다.

Alison Lesley, World Religion news [2014. 11. 14]

부처님의 초기 발자취 따라가는 순례길 개발

비하르, 인도 - 비하르 주(州) 정부 관광국은 ‘걷는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순례길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디가야에서 시작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가 남은 비하르주(州)의 유적지들, 즉 부처님이 보디가야로 가는 길에 방문했던 람푸루바, 로리야 난단가르, 케사리아, 바이살리, 하지푸르 등을 돌아보는 여정이

다. 부처님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 유적지들은 현재 인도 고고학 조사단(ASI)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여행자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불교 순례와 관련된 모든 유적지가 순례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개발될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여행코스가 될 것입니다.”

인도 중앙정부도 비하르 주(州)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관광청은 비하르주(州)와 우따 프라데쉬주(州)의 불교 유적지들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州) 정부들을 돕기 위해 ‘붓다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BD Dipananda,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11. 18]



대서양 해안에 아일랜드 최초의 불교사원 건립계획

코크 카운티, 아일랜드 - 대서양을 내려다 보는 베이라 반도의 절벽에 축척 베이라 수행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센터의 기원은 1970년대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영적인 집을 만들고 싶어 했던 피터 코니쉬와 해리엇 코니쉬로 소급한다. 1992년 소갈 린포체가 이끄는 자선기관에 부지가 기증되어 수행센터가 설립되었다. 바로 이듬해 해리엇은 44세의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투병생활 동안의 경험으로 인해 센터는 요양센터 건립을 꿈꾸게 되고 이 염원은 2009년에 이루어져 마침내 센터 내에 데첸 사잉 영적 요양센터가 건립되었다. 이후 센터는 신체 질환이 있거나 가족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어왔다.

2008년, 센터는 티베트 전통 사원을 설립할 것을 계획, 2011년 인가를 취득했고 수정안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사원은 수행과 세미나를 위한 공간 및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14.5m 높이로 건립될 사원은 티베트 전통을 따르면서도 가장 뛰어난 현대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사원

은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연중무휴로 개방될 것이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조건 속에서 명상과 자비 수행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마다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후원금은 이곳에 와서 지내는 동안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저임금 생활자들의 소득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말기 질환 판정을 받은 환자,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는 환자,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나 만성 피로 증후군 등과 같은 장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하루에 많게는 40여 명이나 센터를 방문해서 명상하거나 정원을 걸으며 바다를 감상합니다.”

센터는 현재 티베트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 및 세미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중에는 50대 이상, 주말에는 주로 30대와 60대 사이의 참여자들이 많다.

Sean O'Riordan, Irish Examiner [2014. 11. 14]



(축척 베이라 수행센터)

버팔로 등 150여 마리 동물 보살피는 불교재단

프림로스, 캐나다 - 앤디 피츠패트릭 씨가 불교 비영리단체인 인터내셔널 문라이트 재단에서 목수 겸 동물 관리인으로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동물 수는 몇 마리 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갈 곳 없는 말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이곳에 들어오는 동물들의 수와 종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말 50여 마리, 소 70여 마리, 라마 두 마리, 그리고 고양이들과 개 한 마리에 더해 그동안 주 정부가 관리하던 35마리의 버팔로까지 보살피고 있다.

“어떤 동물들도 이곳에만 들어오면 매대 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 없이 수명



이 다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버팔로 공원 관리에 매년 소요되는 만 천 불에서 4만 불에 이르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2012년 버팔로 공원 매각을 추진했으나 아무도 나서서 사람이 없었다. 이때 문라이트 재단이 버팔로 관리 및 시설유지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지난 4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원과 동물들은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울타리도 정비되었으며 버팔로들에게 항균치로도 실시되었다. 5만 불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 이 프로젝트 덕분에 지역의 관련 업체들도 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앤디가 볼 때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은 뮌니 뮌니 버팔로들이었다.

“이 계약은 정말 완벽합니다. 재단이 관여함으로써 버팔로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버팔로들은 자신들의 터전인 공원을 떠나야만 했었으니까요.”

Mitch MacDonald, The Guardian [2014. 11. 9]

명상은 경찰 업무수행에도 긍정적 영향 미쳐

▼ 명상중인 인도 경찰들

구자라트, 인도 - 구자라트주(๑)의 수도 수라트의 경찰청장인 하스무크 파텔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명상이 경찰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휘하의 3,500여 명 경찰들에게 명상 수행과 요가를 권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경찰관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며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175명의 경찰관들이 명상 수행을 경험했고 500명 정도가 요가수련에 참여했다.

“경찰관으로서 저는 불의나 부정을 다루게 됩니다. 전에는 이런 일들을 보면 먼저 화부터 났는데 명상을 시작한 후로는 그런 경향이 없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인도 대중들은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몇 건의 범죄사건에서 느린 수사진행과 폭력의 사용으로 인식이 더 나빠졌다.



“경찰도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명상수행이 도움을 줍니다.”

명상에 참여한 경찰관들에게 명상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는 명상이 경찰관의 반발적 태도와 분노,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강화하며 더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한다.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11. 19]

스님, 맨발로 호주를 걷다

시드니, 호주 - 제이슨 첸 스님은 발우와 담요만을 가진 채 3년 계획으로 호주의 동해안 지역을 걷고 있다. 맨발에 가사를 걸친 그는 남방 상좌부불교의 승려이며 2011년 이 순례를 시작했다. 순례의 목적은 자신의 삶에서 탐욕과 증오를 없애고 다른 사람들도 또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북돋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계이며 현재 30대인 그는 시드니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승려가 되기 위해 캔버라의 사원으로 출가했다.

지난 10월 시드니에 도착, 참여불교연합회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한 그를 ABC의 케리 스투어트가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순례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그의 대답은 단순했다. 그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제공하는 곳에서 잠을 잘 뿐이라고 말한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숙소를 제공할 때도 집안보다

는 차고나 헛간에서 자는 것이 더 편하다. 80세에 열반에 들기 전까지 길을 걸으며 탁발을 하였던 부처님과 비슷한 길을 가고 싶다고 말한다. 현명한 삶의 특징으로 호기심, 친절, 그리고 관용을 꼽은 그는 자신을 영화 스타워즈의 주요 인물인 요다로 생각한다.

“요다는 신비로우면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인물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줍니다.”

명성이 참된 지혜에 독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첸 스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적 스승으로 보거나 사람들에게 의해 자신의 영적 수행이 방해받는 것을 경계했다.

스님은 지금도 홀로 길을 걷고 있다.

Naushin Ahmed,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11. 13]



제6회 이주민어울림한마당 아시아 이주민들과 Happy World Together



늦가을의 스산함과 수능 한파 속에 모처럼 반짝이는 햇볕으로 한결 따뜻해진 아침, 서울 경기 각 지역에서 출발한 임대버스가 행사장으로 속속 모여든다. 이주민어울림한마당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서두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진오스님)가 주최하고 오산행복한이주민센터(상임대표 정호스님)와 국제전법단(단장 수암스님)이 공동주관한 제6회 이주민어울림한마당이 지난 11월 16일 오산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자승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해 광상욱 오산시장 문영근 오산시의회위원장 스키랑카 티샤 위제라트 네 대사님 등의 내빈이 참석하여 이주민들이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장을 격려해 주셨다. 자승총무원장스님은 격려사에서 “국제화 시대이자 다문화사회인 오늘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우정을 나누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체육경기와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오늘의 즐거운 기억이 일상생활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마주협 상임대표 진오스님은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말을 건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광상욱 오산시장도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모두가 공동체의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계 이주민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주협 상임대표

진오스님에게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으며, 오산 지역에서 이주민 사업과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에 이바지해 온 김경애 행복한이주민센터 공동대표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배구 시구로 본격적인 배구경기가 시작되었다. 8개 나라 팀의 예선전이 진행되자 각국의 응원 열기로 실내체육관이 들썩인다. 예선을 거쳐 준결승, 마침내 몽골과 태국의 결승전이 진행되자 양 팀의 치열한 접전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다. 앞치락뒤치락 1대1인 상황이 계속되다가 관중석의 응원과 환호 속에 체력이 좀 더 좋은 몽골에게 우승의 기쁨이 안겨졌다.

몸과 마음을 모아 각국의 팀워크를 발휘한 명랑운동회에 이어 일본 전통춤 공연과 락밴드 k-morning, j-morning의 공연에 다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운전스님의 친한 짜장면으로 맛있는 점심 공양)

한편 어울림한마당 개회식 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단법인 나눔과비움에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위탁 불교계 최초 다문화 대안학교인 ‘행복한학교’를 방문,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구미, 전국 첫 다문화 모자가정 안식처 ‘달팽이모자원’ 개소, 다섯 가정 입주 생활

남편의 폭력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 가족들의 안식처가 될 다문화 모자가정 자립시설이 전국 처음으로 구미에 문을 열었다. 구미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구미 지산동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스님은 5일 다문화 모자가정 자립지원시설인 ‘달팽이 모자원’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안장환 구미시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 시설은 한국으로 시집와 남편과 이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쉼터 역할을 하게 된다.대지 460㎡, 건평 180㎡ 규모 주택으로, 지난 9월 말 구미시로부터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시설로 인정받았다. 이 같은 시설이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전국 처음이다.

달팽이 모자원에는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과 아이 등 두 가족 네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 가족이 더 입주할 예정이다.



개소식이 있기까지 삼성전자 구미 스마트시티 등 지역 기관단체들의 후원이 많았다. 특히 ‘달리는 스님’으로 알려진 진오스님은 지난 3년여 동안 1km를 달릴 때마다 100원씩 모금하는 마라톤 모금으로 주택 기금을 마련했다.

진오스님은 “마라톤 모금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어려운 다문화 모자가족들에게 안식처를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달팽이가 사람의 눈에 드러 보이지만 그 나름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처럼 다문화 모자가족도 천천히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054-458-0755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 개소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와 한국능력개발원이 공동 수급처로 선정되어 오는 12월 19일 전국에서 8번째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외국인력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외국 인력지원 업무에 나선다.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폭행, 사기, 사망, 사업장 이동, 비자 연장, 강제적립금, 여권압류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담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수준별 학습과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을 갖춘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즐거운 한국생활을 도울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광주지역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다양하고 활발한 지원활동을 기대해 본다.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 062-946-1199

세계 이주민의 날

2013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고용허가제하에 25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이주 인권단체들이 ‘이주민들의 퇴직금 출금 후 수령제도 철폐’, ‘직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도입’,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 수용’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4대 종교(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고용허가제 관련 국회 간담회
일시 : 12월 9일 오후2시

▶ 2014년 전국 이주민대회
일시 : 12월 14일 동화면세점 앞

▶ 엠네스티 인권 캠페인 기자회견 및 탄원서 제출
일시 : 12월 18일 오전10시 프레스센터
인권 밭상 캠페인 <http://amnesty.or.kr/mw2014/#.VESbP-hUfls.facebook>